

순창 토마토발효고추장 '인기'

군, 풀무원 건강생활에 토마토발효고추장·쌈장 세트 1000개 물량 납품

순창 토마토발효고추장이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순창 장류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군은 지난 16일 풀무원 건강생활(주)에 토마토발효고추장과 토마토발효쌈장 세트 1,000개 물량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납품은 시장반응 테스트 물량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 납품은 확대될 전망이다.

풀무원건강생활(주)는 국내 대표적 인 건강식품 회사로 정평이 나있어 이번 납품이 전통장류에서 진화한 새로운 웰빙식품으로 장류제품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군 측은 전망하고 있다.

순창토마토발효고추장과 쌈장은 토마토 페이스트를 활용해 만드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확보한 미생물을 융합해 만든 토마토 발효액을 사용한다.

미생물을 사용해 두 번 발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감칠맛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확보한 토종 미생물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미생물이 갖고 있는 항당뇨, 항고혈압, 면역력 강화 기능도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은 발효토마토고추장이 전통장류의 산업화를 이끌 제품으로 주목하고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토마토발효고추장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자체 매장과 전주



순창 토마토발효고추장이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순창 장류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한옥마을 발효식품 판매소인 리더과 소공품, 그리고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주)아밭, (주)교촌, (주)풀무원건강생활 등 대형업체에 납품을 성공해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올해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휴게소에 판매점을 확대 운영하고 중소형 거대처로도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교촌의 소스전용공장 신축에 따라 주원인인 토마토발효고추장 납품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농산물 생산자 및 납품업체 기술지도를 통해 최상의 제품생산과 판

매 인력을 갖추어 규모화, 전문화, 대형화의 기틀을 만들고 유통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황순주 군수는 "토마토발효고추장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 잡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지속적 품질 관리로 제품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통망 확보에도 적극 나서서 토마토 고추장이 순창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토마토발효고추장, 발효커피, 미생물 활용 건강식품 등 발효과학을 활용한 다양한 특산품을 개발하고 유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 둘레길 걷기마당 조성 할 것”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전국적 걷기 붐을 일으켰던 지리산 둘레길 주변에 걷기 박물관 등 걷기 마당을 조성해 걷기 운동의 건강과 함께 자연의 멋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 둘레길이 개설된 후 대적으로 걷기 붐이 일어나고 전국 각지에 둘레길, 마실길, 오름길 등 각종 걷어 다닐 길이 생겨나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남원시가 2010년

지리산 둘레길을 활성화하여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 등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3개도 5개시군에 걸쳐 295km에 달하는 지리산 둘레길 22개 코스가 완성됨에 따라 전국 최고의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리산 둘레길 1~3코스 주변에 (가칭)걷기 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전국적으로 걷기 운동이 일상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둘레길 조성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전국적으로 둘레길 조성의 발상지인 남원 지리산 주변에 걷기 운동의 상징성과 시골의 옛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관광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청소년문화의집 행사 개최

순창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21일 '밥은 먹고 다니니?' 행사를 개최해 청소년 건강문화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이번 '밥은 먹고 다니니?'는 순창청소년문화의집 2층에서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방과 후 학원가기 전에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청소년기에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한끼를 제공하는 행사다.

순창청소년문화의 집은 올해 순창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밥은 먹고 다니니?'를 10회 진행할 계획이다. 21일 행사는 지난 3월 14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14일 행사에서는 닭볶음탕과 밥, 맛있는 한끼를 제공했다.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성인동아리 비빌언덕 회원이 함께 봉사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최근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 구입하는 농기계 선정에 관한 심의 및 임대료 조정, 임대사업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의 내용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농기계 임대사업 주요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내구연한 경과 기종 폐기,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임대료 신규 책정 및 변경, 운송기중 확대 등을 심의 하였다.

특히 내구연한 경과기종과 노후화 되어 성능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과 수리로 대체 농기계구입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농번기에 일부 기종은 소요대수에 비하여 임대농기계 확보 대수가 적으므로 충분히 농기계를 확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장류축제, 주제·아이디어·포스터 공모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남)에서 오는 4월 4일까지 제13회 순창장류축제의 새로운 주제, 아이디어, 포스터를 공모한다.

축제의 주제와 아이디어 분야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포스터 분야는 인쇄문화산업진흥원에 의거 신고 된 업체로 한정하여 선정된 이후 포스터 제작까지 맡게 된다.

주제 분야는 축제의 이미지와 내용을 연상 시킬 수 있는 있는 함축적인 표현형식으로 제안하면 된다. 이에 대한 시상금은 대상 30만원, 우수 10만원, 장려상 3명 각 5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디어 분야는 축제정의 구성 또는 홍보방안, 체험 프로그램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이에 대한 시상금은 대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을 지급한다.

포스터 분야는 순창의 고추장 등 장류와 축제가 어우러지는 창의적인 내용으로 제안하면 된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축제 포스터 제작에 참여 한다.

이번 장류축제 주제 등 공모는 오는 4월 4일까지이며 순창장류축제 홈페이지(www.jangfestival.co.kr)에서 접수하며, 우편,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올 제13회 장류축제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치즈마을 소교량 재가설 사업 돌입

재난안전 특교세 6억원 확보

임실을 치즈마을의 소교량 재가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임실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험교량 재가설비로 6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임실을 치즈마을 소교량 재가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을 치즈마을 소교량은 노후되고 교각이 침식돼 붕괴위험이 매우 높았다.

교량의 통수단면이 부족해 제방 월류로 인한 치즈마을체협관 및 주택침

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져 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지역이었다.

이에 군은 소교량 재가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주력했으며, 특교세 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확보된 재난안전특별부세는 심 민 군수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소교량 재가설을 통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은 "여름철 비만 내리면 교량이 넘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며 "이번 사업비 확보로 교량이 재가설되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치즈마을은 지난 해 말 기준, 3만2000명의 체류객 및 관광객이 찾는 한국 치즈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예방 앞장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화상병 예방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계획을 수립, 방제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화상병은 식물의 세균성병으로 주로 사과, 배, 모과 등과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과일, 가지 등에 광범위하게 발병한다.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식물 조직이 검게 마르게 되어 화상병으로 불리고 있다.

이 병은 비와 바람, 곤충류, 농기구

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치료가 불가능하다.

화상병에 걸리면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발생지역의 상업적 재배는 물론 과실 수출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과수 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화상병으로부터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정도구 등 농기구와 차량, 작업자에 대한 소독(70%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액, 락스 20배 희석액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서 농기계 안전교육

순창경찰서(서장 김대형) 순화파출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후미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해주고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순화파출소에서는 농기계 후면에 시인성이 좋은 '추돌주의' 야광반사스티커 부착활동을 전개하면서 농기계 운전자에게 야광조끼도 함께 나눠주고 있다. 또한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방문하여 농기계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